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09>

JCCT 2022-1-23

##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산업적 활용 사례연구 -인천 대불호텔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Tourism Industrial Utilization of Early Modern Cultural Heritage -With a Focus on Incheon Daebul Hotel-

심홍보\*

Hong-bo Shim\*

**요약** 본 연구는 근대문화유산관련 호텔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문헌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근대호텔 발전사를 정립하였다. 둘째, 대불호텔 복원관련 자료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산업적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대호텔 복원을 위한 관광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각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근대호텔 복원계획은 철저한 당위성 검토와 콘텐츠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근대호텔 복원은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근대호텔 복원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각 지역의 관광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효과, 고용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근대호텔 복원에 대한 지속적·적극적 홍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 근대문화유산, 근대호텔, 대불호텔 복원, 관광산업적 활용

**Abstract** To study hotels related to early modern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has, first, attempted a historical approach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established an early modern hotel development history. Second, it has strived to suggest tourism industrial utilization measures by studying tourism industrial utilization cases through materials on the restoration of Daebul Hotel and interviews with related parties. Consequently, the researcher offers the following as tourism industrial revitalization measures for the restoration of early modern hotels. First, restoration plans for early modern hotels from early modern heritage in each reg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orough examination of justifiability and of content development plans. Second, restoration of early modern hotels in each reg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intent of an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by local governments. Third, restoration of early modern hotels is a thing of historical significance and value and should be promoted as a business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ation of tourism and economic effects, acceleration of employment, etc., in each region. Fourth, preparation of a consistent, proactive advertisement methods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early modern hotels is necessary.

**Key words** : Early Modern Cultural Heritage, Early Modern Hotels, Restoration of Daebul Hotel, Tourism Industrial Utilization

\*정희원, 오산대학교 호텔관광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28, 2021 / Revised: January 1,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hbshim@osan.ac.kr

Dept. of Hotel&Tourism, Osan Univ, Korea

## I. 서론

19세기말 개항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외교관, 학자, 교사, 기독교 성직자 및 선교사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그 당시 호텔의 기능은 숙박기능뿐만 아니라 사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호텔은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의 하나로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1].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인천에 세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며, 벽돌집 3층으로 된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불호텔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근대산업유산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조성된 산업유산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2]. 또한 입지적으로 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단일시설로 존재하기보다 여러 시설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들어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산업유산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산업유산의 재생·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세대를 막론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대한 소재를 콘텐츠화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문화시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근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면서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3].

2018년 인천광역시에는 근대문명의 상징인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을 복원시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문화유산의 상징인 개화기 호텔을 연구하는 것으로 첫째, 문헌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해당 기간에 발행된 신문, 잡지, 논문, 서적 등의 호텔관련 내용을 역사적 시각에서 탐색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근대호텔발전사를 정립하였다.

둘째, 인천광역시 시청 관광개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인천 대불호텔 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조사하여 국내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근대문화유산의 근대호텔

#### 1) 근대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의 공식명칭은 등록문화유산이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특히 ‘개화기’를 기점으로 ‘한국전쟁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첫째,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둘째,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셋째,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넷째,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다섯째,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4]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은 1990년대 이후로 근현대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 재평가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적, 정신적 사물인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주요 대상이자 우선적 지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며[5], 표 1에 보는바와 같이 국내 등록문화재 227개 중 관광상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은 30개로서 활용되고 있거나 홍보되고 있는 유산은 4점(철원노동당사, 장경궁 대은실, 덕수궁 석조전 동관 및 정관현 노근리 쌍골다리)으로 문화유산관광 및 역사와 교육 관광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문화유산의 우수사례를 통해 관광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근대문화유산 등록 현황

Table 1. Early Modern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status

계	지정 문화재 (소계)	국가 지정	시·도 지정				등록문화재
		사 적	소 계	유 형	기 념 물	자 료	
403	176	33	143	40	71	32	227

자료 : 문화재청(www.cha.go.kr)

#### 2) 근대호텔

개화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관광단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다양한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조선개항과 더불어 제물포가 개항함에 따라 통상무역이 활성화되고, 외교관, 선교사, 여행가, 사업가 등의 외국인의 내왕이 빈번해짐에 따라 근대식 호텔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호텔의 첫 등장은 인천지역으로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인천항(옛 제물포항)에 도착하면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수배하였다. 그러나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는 주로 활용된 교통편으로 말이나 가마를 이용하였고, 본인이 직접 도보로 나서는 것이 전부였다[6]. 배의 도착 시간에 따라 인천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는 상황이라 숙박시설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1) 인천지역 근대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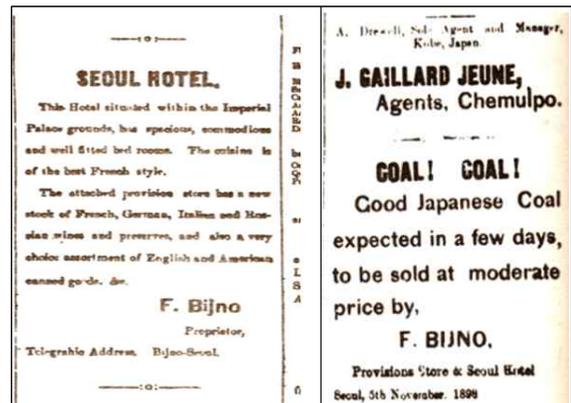
국내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은 1884년경 2층 규모의 일본식 목조건물로 개관하였으나 외국인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1887년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1888년에 3층 규모의 양관으로 신축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1888년 외국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우후죽순처럼 몰려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은 몇 년 새 그 작은 마을(인천)의 면모를 바꿔 놓았다. 제대로 시설을 구비한 호텔만 해도 두 개씩이나 버젓이 들어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인이, 다른 하나는 다이부츠(大佛)라는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7]. 위의 문헌에 의하면 중국인 이태(怡泰)가 개업한 스튜어트 호텔로 추정할 수 있고 숙박시설과 잡화점을 겸하여 운영하였다. 그 밖에 인천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근대호텔은 랜도어(Landor)가 1890년 인천을 방문하여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대불호텔, 스튜어트 호텔 외 호텔 드 꼬레(Hotel de Cor'ee)를 소개하였는데 이 호텔은 헝가리 사람의 소유로 외국인들에게 좋은 휴식처였다[8]. 따라서 1890년경 인천에는 3개의 서양식 호텔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오리엔탈 호텔(Oriental Hotel)과 터미나스 호텔(Terminas Hotel)이[9]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 주변의 서양식 숙박시설은 1899년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인천항에서 며칠씩 머무를 필요가 없어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반면 서울 서대문과 정동에서 서양식 호텔이 개관하기 시작하였다.

### (2) 서울지역 근대호텔

서울시내의 근대호텔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98년 대 이후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호텔은 서울호텔, 팔레호텔, 임페리얼호텔, 스테이션호텔, 손탁호텔 등이 1898년에서 1902년 전후한 시기에 개업하여 운영되었으며, 그 후 1914년에 개관한 조신포호텔과 1936년에 개관한 반도호텔이 우리나라의 근대호텔로 알려져 있다.

#### 가) 서울 호텔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 1898년 1월4일자에 수록된 ‘서울호텔’은 이탈리아인 빼이노(F. Bijno)이고, 그 장소가 ‘황궁 구내’, 즉 ‘덕수궁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10],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공되는 요리와 숙박시설 일체가 서양식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명실상부하게 근대시기 서울 소재 서양식 호텔의 원조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며[11], 그림 1은 1898년 3월29일자 광고 문안에 따르면 탁 트인 널찍하고 잘 갖추어진 침실이 있고, 요리는 최상의 프랑스 스타일이며, 러시아, 프랑스 및 이탈리아산 통조림과 술, 샴페인, 상급의 라인 및 모젤 와인, 독일맥주, 상급의 독일산 및 일본산 광천수, 이탈리아산 완두콩, 세르놀리나 아몬드, 해즐넛, 농축 및 무가당 우유, 상급의 식탁용 건포도 및 커런트(파운드당), 러시아산 및 이집트산 담배를 판매하였다[12].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www.culturecontent.com)

그림 1. 서울 호텔  
 Figure 1. Seoul Hotel

1899년 5월1일자 독립신문 광고 문안에 따르면 빼이노는 정동에서 장사를 계속하다가 1899년 내지 1900년에 근거지를 제물포로 옮겼고, 이후 빼이노의 정체와 그 이후의 행적, 서울호텔이 자리했던 정확한 위치는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서울호텔은 최소 1898년 1월에 개관하여 서양식 호텔로 운영된 서울 최초의 호텔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헌에서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 손탁호텔(1902년 개관)로 알려져 있는 것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팔레 호텔

서울호텔에 이어 등장한 호텔은 궁궐이라는 의미의 불어인 팔레(Palais)를 사용한 팔레호텔(Hotel du Palais)로 정동 대안문 앞에 1901년에 개관하여 운영하였다.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www.culturecontent.com)

그림 2. 팔레 호텔  
 Figure 2. Palais Hotel

위그램(Whigham)이 설명한 프렌치호텔은 홈즈(Holmes)가 남긴 사진과 일치하고, 당시 소유주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한매일신보(1904.8.4.)에는 소유자 마르탱(L. Martin)이 호텔 드 팔레(Hotel du Palais)라는 광고를 실으면서 서울의 유일한 일급(first class) 호텔로서 궁궐 맞은편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요리는 숙련된 프랑스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culturecontent.com)

그림 3. 팔레 호텔  
 Figure 3. Palais Hotel

요리사의 관리하에 제공된다고 소개하여 주인의 이름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팔레호텔을 ‘법국여관(法國旅館)’이라고 하였는데 대한매일신보(1905.2.4.) “정동 법국여관((法國旅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여관(中央旅館)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같이 팔레호텔(Hotel du Palais)은 법국여관(法國旅館), 중앙여관(中央旅館), 펠리스호텔(The Palace Hotel)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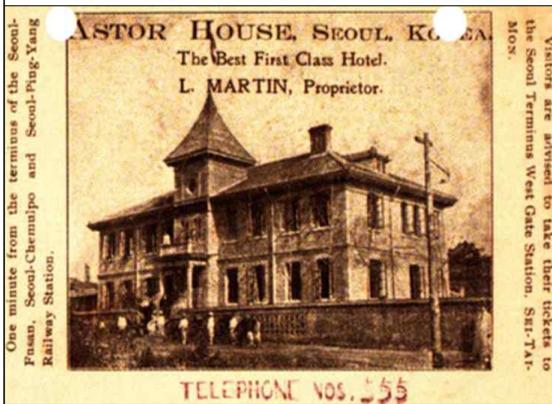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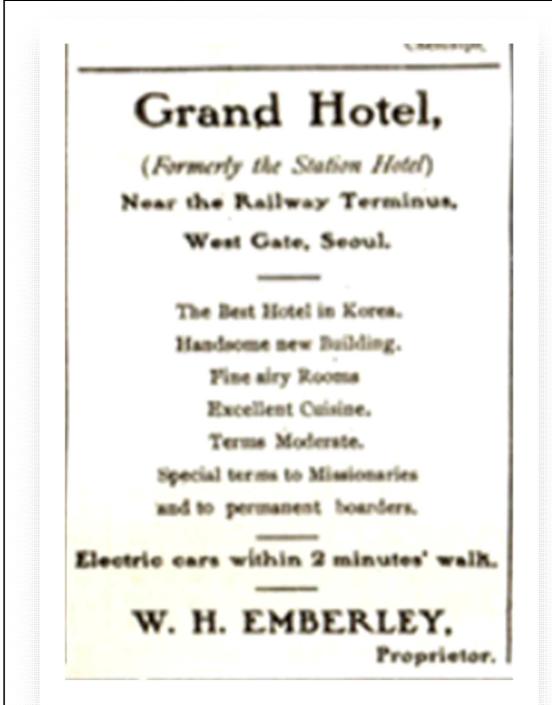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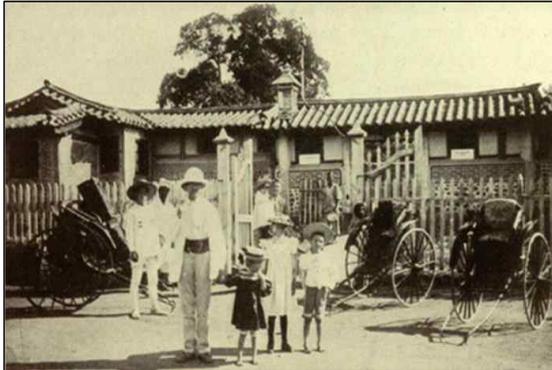
다) 스테이션 호텔

그림 4는 1901년 4월경 개관한 스테이션호텔은 서대문 정거장 옆에 있다하여 ‘정거장여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01년경 우리나라를 방문한 홈즈(Burton Holmes)도 막 개업한 스테이션호텔에 묵었는데, 그는 스테이션호텔(Station Hotel)은 훌륭한 숙박시설로서 적절한 가격이며, 영국출신의 엠벌리(W. H. Emberley)라는 부부가 주인이었다[14]. 스테이션호텔의 주인 엠벌리(W. H. Emberley)는 독립신문이 정리될 때 이것을 최후로 인수하여 1899년 6월1일 독립신문사의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에 앞서 1898년 6월부터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의 인쇄 감독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15].

한편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4일자(영문판)에는 그랜드호텔(Grand Hotel)의 광고가 등장하는데, 이전의 스테이션 호텔(formerly the Station Hotel)이라는 표기와 더불어 철도종착역 인접, 서대문, 서울, 한국 최초의 호텔, 근사한 새 건물, 멋지고 통풍이 잘되는 객실, 훌륭한 요리, 요금 저렴, 선교사 신분 및 상주투숙객에게는 특별요금, 도보로 2분내 전차이용, W. H. 엠벌리, 소유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아울러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10일자(국문판) 이후의 광고에도 그랜드여관(정거장여관) 폐관은 황성 서소문밖 정거장근처에 있사오며 일등여관이음, 여관 주인 엠벌니 고객이라는 내용이 잇달아 수록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스테이션 호텔은 1904년에 근접하는 시점에 새로운 서양식 건물을 완공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호텔의 이름까지도 그랜드호텔로 개칭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랜드호텔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도 잠시뿐, 이내 에스터 하우스(Astor House)라는 새로운 호텔이름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기에 이른다. 이 이름은 윤치호일기 1905년 11월15일자에 더 에스터

하우스, 이전의 스테이션 호텔이라는 식으로 채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확인된 애스터 하우스에

관한 최초의 용례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원래의 스테이션 호텔은 잠시나마 그랜드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시절을 거쳐 1905년 후반 무렵에 다시 애스터 하우스로 그 이름을 바꾼 것으로 정리된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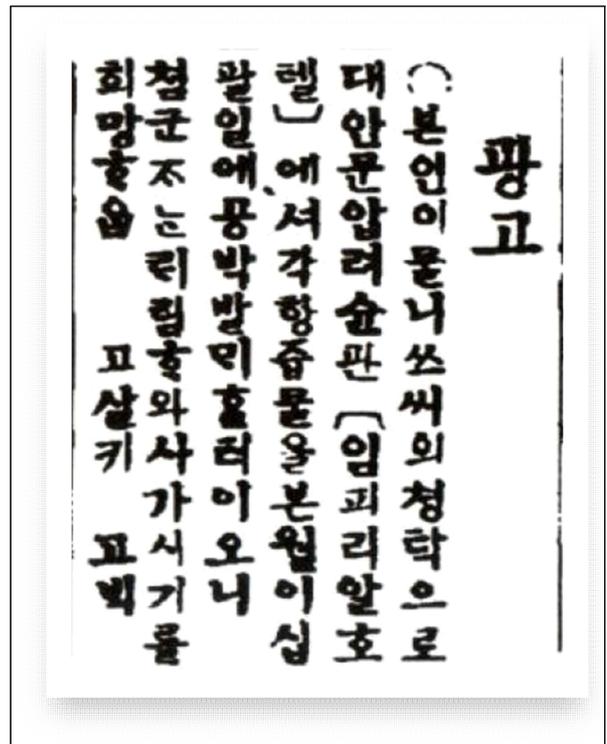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www.culturecontent.com)

그림 4. 스테이션 호텔  
 Figure 4. Station Hotel

라) 임페리얼 호텔

폴란드 태생 러시아인 작가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Watslav Sieroszewski, 1858~1945)가 지은 코레아(Korea, 1903)라는 책에 등장하는 구절에 임페리얼 호텔에 가려면 도시 전체를 통과해야만 한다. 호기심어린 군중을 대동한 채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궁궐 앞 작은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 한쪽에는 왕실의 병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서울 최고의 유럽식 호텔이 두 채 서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했던 몰리스(Moulis)씨가 아주 서투른 러시아어로 나를 맞았다[17].

더 홍콩 데일리 프레스(The Hongkong Daily Press)에서 해마다 발행한 더 디렉토리 앤드 크로니클(The Directory & Chronicle)에 1904년판과 1905년판에 걸쳐



자료 : 이순우(2019), 박물관 유물로 본 근대시기 서양식 호텔의 변천사, 민족문제연구소

그림 5. 임페리얼 호텔  
 Figure 5. Imperial Hotel

서울지역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18].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페리얼 호텔은 대안문(대한문)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사진자료나 물리사라는 사람이 누구이며, 호텔이 언제 개관했고 문을 닫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마) 손탁 호텔

개화기 조선에서는 서양 여러 나라와 근대적 외교조약을 체결한 후 궁중에서 외교사절을 접대하는 일이 많아지자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시기인 1885년 조선에 부임하던 러시아 공사겸 총영사 베베르(Carl waeber)의 처형 손탁(Antoinette sontag)과 함께 들어왔는데, 손탁은 외국인을 위한 왕실 연회를 주관하면서 국내외 귀빈들에게 서양 요리를 대접하고, 고종과 명성황후에게도 서양 요리를 맛보게 했다. 특히 명성황후는 서양 열강의 소식을 재치 있게 전달하는 손탁을 총애하여 자주 접견하게 되었으며, 독어, 불어, 영어, 한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탁월한 언어감각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당시의 궁중과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서양식 관습과 근대 풍물도 소개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선말의 손탁은 중요한 외국인이 되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변변한 호텔이 없어 손탁의 사저에 묵었고, 서양의 외교관들이 자주 들러 사교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손탁의 사저는 정동화옥(貞洞花屋)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동의 꽃처럼 아름다운 집이었다. 특히 이곳은 황실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의 영빈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후 대외관계가 점차 다변화되고 외국 귀빈들의 방한이 빈번해짐에 따라 손탁의 사저는 너무 협소하여 신증축을 하게 되었는데[19], 그림 6에 보는 바와 같이 1902년 10월에 2층으로 된 서양식 벽돌건물이 준공되었고 이 때 손탁호텔의 모습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손탁호텔은 손탁에 의해 6년간 영빈관 개념으로 운영되었고, 러일전쟁 후 러시아가 일본에 패하면서 러시아공사관이 폐쇄되자 손탁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1909년 5월에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1909년 9월 18일부터 프랑스인 호텔경영업자 보헤르(J. Boher)가 손탁호텔을

인수 운영하였다. 이 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서 구입하여 대학교의 교실, 기숙사로 이용하다가 1922년에 이 건물을 헐고 각종 부속시설이 포함된 프라이 홀(Frey Hall)을 세웠다[20].

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손탁호텔은 다른 호텔에 비하여 근대사 및 근대호텔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관광산업적 활용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www.culturecontent.com)

그림 6. 손탁 호텔  
 Figure 6. Sontag Hotel

2. 인천 대불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사례

1) 대불 호텔

대불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며, 1884년경 2층 규모의 일본식 목조건물로 개관하였으나 외국인들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여 1887년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1888년 3층 규모의 서양식으로 신축하였고, 일본인 해운업자인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郎)에 의해 운영되었다. 당시 외국인들은 인천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고, 인천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미리 인천에 와서 배편을 기다려야 했다. 덕분에 인천의 숙박업은 호황을 누렸다. 대불호텔은 객실이 11개였고, 객실료는 상등실 2원 50전, 일반실 2원으로 다른 여관에 비해 높았으며, 서양식 건물에 고급 침구를 갖춘 객실, 피아노를 구비한 연회장이 있었고, 서양요리를 제공하였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종업원이 서비스를 해서 일본식 여관과 구별되었다. 그러나 이 호텔을 이용한 외국인들은 서양

요리가 형편없는 것, 비가 새는 것 등을 불평하였다.

상황을 누리던 인천지역 호텔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어 인천과 서울이 1시간 거리가 되면서 인천지역 숙박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불호텔은 1907년 무렵까지 영업하다가 폐업하고, 1918년 퇴소정(賴紹晶)을 비롯한 40여 명의 중국인들이 대불호텔을 인수하여 일본인과 중국상인들을 상대로 북경요리 전문점 중화루(中華樓)를 열었다. 중화루는 해방 후 1970년 초까지 운영되다가 폐업을 하고 1978년 철거될 때까지 월세집으로 쓰였다[21]. 그 후 인천광역시 중구는 그림 7에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4월 기존 빈 터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에 약 56억원을 들여 역사적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으며, 복원된 대불호텔은 중구 생활사 전시관의 1관과 2관중 1관으로 현재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 <https://www.google.co.kr/>

그림 7. 복원된 대불 호텔  
 Figure 7. Restored Daebul Hotel

## 2) 관광산업적 활용 사례

### (1) 사례조사 방법

본 연구는 근대문화유산의 상징인 개화기 호텔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문헌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근대호텔발전사의 정립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대불호텔 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관광산업적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터뷰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대불호텔 복원에 관계가 있는 대불호텔전시관, 인천 중구 구청 관계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원활한 대면 인터뷰를 위하여 사전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방문하여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대불호텔 관광산업적 활용 사례 인터뷰 결과 가) 대불호텔 복원 개요

① 추진배경은 2011년 건축공사 시 확인된 유적(대불호텔 기초 구조물)의 활용계획이 문화재청 및 시 문화재과 현상변경 승인처리 됨, 현 유적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립 당시의 대불호텔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여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도시경관을 보존하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②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18번지(신포로23번길 101), 대지면적 386.8㎡, 연면적 628.82㎡, 지상3층으로 대불호텔 터 유적의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사업비는 2,589백만원(학술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었다[22].

### 나) 관광산업적 활용 인터뷰 결과

대불호텔관련 인터뷰 내용은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담당자 및 관련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중복성 질문내용과 답변이 어려운 내용을 제외한 13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대불호텔관련 담당자 인터뷰 결과

Table 2. Result of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Daebul Hotel

No	질문 문항	인터뷰 결과
1	대불호텔을 복원하게 된 동기나 계기	토지주가 개발 중 대불호텔 유구 발견을 계기로 복원하게 됨
2	복원당시 가장 중점을 둔 것	유구의 보존과 외형을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
3	복원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일	문화재청과의 협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여론
4	복원결과 잘된 점	외형을 재현하여 랜드마크화에 기여
5	복원결과 아쉬운 점	자료 부재로 내부 모습 재현의 어려움

6	복원 비용과 비용 중당	전액 구 예산으로 중당
7	대불호텔을 이용한 관광상품	전시관 및 박물관 통합관람권, 문화재 야행 등 행사 시 개방, 관광 연계상품
8	복원 후 관람객의 반응	근대호텔에 대한 흥미로움 제공
9	복원 후 지역관광에 도움	박물관 벨트화로 전시관 및 박물관 관람객 증가 개관전(2017)462,921명, 개관후(2018)526,089명 증가
10	대불호텔과 함께 코스로 개발된 관광상품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도보 탐방 코스
11	복원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와 가치	개화기 당시 최초의 서양식 호텔, 최초의 커피 판매 장소로 추정, 개항기 서양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
12	대불호텔 연계한 인천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대불호텔의 역사성 활용한 콘텐츠 개발
13	근대 호텔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 담당	복원호텔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내부 콘텐츠 계획 필요

그 외 대불호텔의 관람 운영은 중구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여 고용효과에도 일조하고 있었고, 사전예약 시 역사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3.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대불호텔 복원의 관광산업적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근대호텔 복원계획은 철저한 당위성 검토와 콘텐츠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역관광 활성화와 문화재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계획되기 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에 대한 보전의 목적이 사전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근대호텔 복원은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대호텔에 대한 복원은 그 당위성을 위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할 고증자료 조사, 전문가 및 주민들의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법규 검토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필요시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근대호텔 복원은 문화재청, 시, 구청, 군(읍) 등의 행정기관과 학술연구기관, 지역의 문화재단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아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근대호텔 복원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각 지역의 관광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효과, 고용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불호텔의 사례를 보면 전시관 및 박물관 조성, 주변 관광상품과의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지역의 관광벨트화 개발, 관광코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호텔 복원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 있는 일이다. 넷째, 근대호텔 복원에 대한 지속적·적극적 홍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근대호텔의 복원은 지역의 역사적 및 문화유산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 거점지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 홈페이지, SNS 등의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광수용 태세 및 관광교류협력을 위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시 된다.

## III. 결 론

최근 과거에 대한 소재를 콘텐츠화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문화시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면서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문화유산의 상징인 개화기 호텔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문헌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근대호텔발전을 정립하였다. 둘째, 대불호텔 복원관련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관광산업적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근대호텔의 관광산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불호텔의 관광산업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 설문지를 구성하여 인천 중구 구청관계자에게 사전 전화 및 이메일을 발송하여 작성하게 하고, 방문하여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20개 항목의 인터뷰 결과 중복성 질문과 답변의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제시하였고, 그 외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불호텔의 복원은 유구발전을 계기로 복원하게 되었으며, 유구의 보존과 외형을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하고, 주변 관광지의 랜드마크화에 기여

하였다. 특히 문화재청과, 토지 소유주,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웠고, 객실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불호텔 복원으로 인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성, 관광벨트화, 관광코스 개발, 역사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최초의 서양식 호텔 등 인천 중구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불호텔 개관 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과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근대호텔 복원을 위한 관광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근대호텔 복원계획은 철저한 당위성 검토와 콘텐츠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역관광 활성화와 문화재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계획되기 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 및 역사유적에 대한 보존의 목적이 사전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근대호텔 복원은 지자체의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대호텔에 대한 복원은 그 당위성을 위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할 고증자료 조사, 전문가 및 주민들의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법규 검토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필요시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근대호텔 복원은 문화재청, 시, 구청, 군(읍) 등의 행정기관과 학술연구기관, 지역의 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아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근대호텔 복원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각 지역의 관광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효과, 고용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불호텔의 사례를 보면 전시관 및 박물관 조성, 주변 관광상품과의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지역의 관광벨트화 개발, 관광코스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호텔 복원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 있는 일이다. 넷째, 근대호텔 복원에 대한 지속적·적극적 홍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근대호텔의 복원은 지역의 역사적 및 문화유산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 거점지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 홈페이지, SNS 등의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광수용태세 및 관광교류협력을 위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시 된다. 상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대호텔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제시하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 [1] J.W. Sohn, H.R. Cho(2011). A Study on architectural historic of Hotel DIABUTSU,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Vol.11 No.3.
- [2] J.H. Park(2013). Urban regeneration and Incheon regional studies through creative us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3] Y.I. Hye, H.J. Han, S.J. Kim(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Documenta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 Focus on the Modern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ulture Convergence Archiving.
- [4] Korea Tourism Organization(2005). Research report on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tourism resource plan.
- [5] A.Z. Shin(2015).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ystem,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59(4).
- [6] K.H. Kim, G.S. Lee(2016). A Study on the Hotels in Korea modern era,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12(4).
- [7] J.H. Lee(2013). The Study on Hotel Development History of The Flowering Time i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5(5).
- [8] Landor, H. S.(1895), Corea or Cho-Sen, London: William Heinemann.
- [9] J.H. Lee(2013). *ibid.*
- [10] sisajournal. <http://www.sisajournal.com>
- [11] S.W. Lee(2019). History of Western Style Hotel in the Modern Period as a Museum Relic,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12]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
- [13] J.H. Lee(2013). *ibid.*
- [14] Holmes, Burton(1908), The Burton Holmes Travelogues. NY: The McClure Company.
- [15] S.W. Lee(2019). *ibid.*
- [16]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
- [17] W. Sieroszewski, J.Y. Kim(2006). Korea 1903 Autumn.
- [18] S.W. Lee(2019). *ibid.*
- [19] J.H. Lee(2013). *ibid.*
- [20] Ewha Girl's High School, Ewha 90 Years History, 1979, p.120.

[21]<https://ncms.nculture.org>

[22]<https://www.icjg.go.kr/index>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A8034171)